

# 담양군, 247억 들여 2023년까지 상수도 현대화

### 18개 상수도 관망 블록 구축...누수 신속 발견 수돗물 낭비 막아 담양읍 9~10일, 창평·고서·대덕면 14일 새벽 0시~4시30분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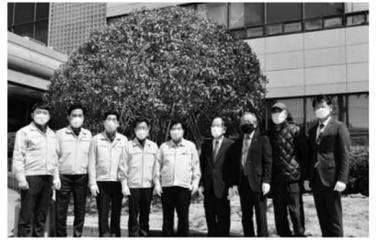
담양군이 총 사업비 247억원을 들여 담양 전역에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물순환사업소는 오는 2023년까지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18개 상수도 관망 블록을 구축한다. 관망 정비사업으로 블록이 완성되면 각 구역별

로 공급량·소비량·누수량 파악이 가능해져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고, 수도관에 작용하는 수압이 적정하게 유지돼 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 붉은 물이 나오는 등 비상사태 발생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피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물순환사업소는 상수도 관망 블록 구축 전 사전 고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양읍, 창평면 일부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일시 중단한다. 이는 블록 구축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단계에서 블록이 제대로 구축되는지를 확인하고 구간별 누수량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수 시간은 물 사용이 가장 적은 새벽 0시부터 4시30분까지이며, 작업으로 인해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는 예상시간은 새벽 0시부터 6시까지다.

담양공용터미널·담양공업고 주변 등 담양읍과 무정면은 9일, 담양읍 가산리·삼다리와 봉산면은 10일, 창평면·고서면·대덕면은 오는 14일 새벽 물 공급이 일시 끊긴다. 담양군 관계자는 "단수 전에 해당 읍면과 각 마을에 홍보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블록시스템 구축과 관망정비 공사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양해와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황금빛 향기 만리물 물들이듯 옐로우시티 장성군 재창조를" 주민, 50년생 '금목서' 군에 기부

장성군청 광장에 수령 50년된 금목서가 자리잡았다. '황금빛 향기 만리물 물들이듯' 금목서처럼 옐로우시티의 향기로 장성을 재창조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을 충무동에 거주하는 고흥중(85)씨가 자택 마당에서 50년 간 키워온 금목서를 장성군에 기증했다. 장성군은 이 금목서를 지난 6일 군청 광장에 심고 기존의 뜻을 기념비에 새겼다.<사진> 금목서는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꽃나무로, 9-10월 잎 아랫부분에 꽃잎이 4장인 등황색의 꽃을 피우고 겨우내 푸른 잎과 자주색 열매도 볼 수 있어 정원수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꽃향이 향기롭고 강해 만리까지 퍼진다고 해서 일부지역에서는 만리향이라고 부른다. 고흥중 씨는 "전국 최초로 컬러마케팅이 도입돼 고흥 장성이 변해가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장성군이 향기로온 꽃향기로 가득한 옐로우시티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기증 소감을 밝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난 50년간 개인의 보물이었던 금목서가 군청 광장으로 옮겨와 5만 군민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정원수가 됐다"며 "당신의 마음을 끝내"라는 금목서의 꽃말처럼 군민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옐로우시티 장성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장성군, 태양광발전 설비 지원 보조율 55%서 70%까지 확대

장성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기존 55%이던 지원 보조율을 70%까지 대폭 확대했다. 장성군은 올해 60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비 2억1000만원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이다. 보조율 상향에 따라 주택용량 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용 503만원 가운데 본인이 151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를 국비와 전남도, 장성군이 지방비로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13일부터 9월4일까지이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에서 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임야 많은' 장성군...산림소득 7개 사업 31억 지원

### 보조율 40%→50%로 상향 소득 작물 재배 규모도 확대

임야 비율이 62%를 차지하는 장성군이 산림소득 향상 사업에 힘을 쏟는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개선을 통해 산림소득을 높이는 7개 사업에 31억 원을 투입한다. 장성군은 올해 산림소득 지원 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보조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두릅·뽕·감 포장재 제작, 저온저장고·건조장 설치, 대추농가 생산 장비 지원, 병해충 방제기·선별기·전동기워 구입 보조금 등이다. 전국 최대 생산 규모를 자랑하는 잔디 농가를 위해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를 비롯해 잔디 생산·재배에 필요한 소형 잔디 깎기 등의 장비 구입비도 지원한다.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잔디, 뽕, 고로쇠, 두릅, 대추 등 소득 작물 재배사업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장성군이 임산물 생산과 유통사업 등 산림소득을 향상시킬 7개 사업에 31억원을 투입한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지역은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임업인의 소득 증대가 지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임산물의 생산·유통구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화순군, 기동단속반 가동

화순군이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임산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화순군은 특별사법경찰과 읍·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립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립 내 오폐수·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소우주의 등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립보호법 제54조', '산립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명기 화순군 산림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철저한 단속으로 산립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중한 산립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산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화순 요양시설 종사자 '전원 음성'

### 요양병원 등 1556명 코로나19 전수검사

화순지역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종사자 모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9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원, 장애인·아동·노인 보호시설 종사자 155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광주·전남 지자체 가운데 요양시설 종사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한 것은 화순군이 처음이다. 화순군은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무증상 감염도 속속 보고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화순 읍·면·동 화순화순스포츠센터 이용대체육관 앞 주차장

에 차량이동형(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화순군보건소는 전수검사를 계기로 집단생활 시설과 요양병원 관계자와 핫라인을 유지해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중 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공유·논의할 계획이다. 구중근 화순군수는 "앞으로도 감염 추이와 양상 등을 파악하면서 취약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



### 화순하늬움센터 이용대체육관 앞 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임시 선별진료소.

<화순군 제공>

해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담양장학회, 장학생 90명 선발 4개 분야 25억9100만원 지급

(재)담양장학회는 최근 제58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담양지역 학생 90명을 2020년도 장학생으로 선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담양장학회는 담양 지명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조성한 미래천년장학금의 수혜자 2명을 포함해 담양장학생 63명, 등불장학생 4명, 임흥군등불장학생 2명, 최두호장학생 14명, 두봉장학생 3명, 허영호장학생 2명 등 총 9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등불장학생과 임흥군등불장학생은 통합해 내년 장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담양장학회는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4개 분야 25억9100만원이며, 원거리 통학을 위한 에듀택시사업과 자유학년제 대비 진로탐구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